

# '5선발' KIA 김도현, 철옹성으로 우뚝 선다



7경기 40.2이닝 1승 2패 평균자책점 3.10  
토종 선발 시즌 첫 승·QS 4회 등 맹활약

KIA타이거즈투수 김도현이 선발마운드를 든 듯 책임지며 철옹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도현은 지난 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키움하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 6이닝 4피안타 5탈삼진 3실점으로 퀄리티스타트(QS·6이닝 3자책 이하)를 달성했다. 이날 김도현은 경기 초반부터 위기를 자초하며 흔들리는 듯했으나, 곧바로 안정감을 되찾으며 6이닝까지 마운드를 지켰다. 1회말 두 타자 연속 볼넷을 내준 뒤 땅볼과 적시타로 2실점을 했다. 이후 5회말 추가 실점을 허용했고, 6회말에는 삼자범퇴 이닝에 성공하면서 3-3 상황에 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비록 동점에서 마운드를 내려와 승수를 올리지 못했지만, 위기를 잘 넘겨낸 덕에 팀은 5-3 승리를 따낼 수 있었다. 2022년 한화이글스와의 트레이드로 KIA에 합류한 김도현은 지난해 2월 군 복무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활약했다. 지난 시즌 35경기(선발 10경기)에 등판해 75이닝 4승 6패 3홀드 평균자책점 4.92를 기록했고, 한국시리즈에서도 2경기 3이닝 1피안타 1볼넷 3탈삼진 무실점으로 팀 우승에 기여했다. 올 시즌 시작 전에는 황동하와 함께 5선발 경쟁을 치렀다. 이의리의 부상 공백으로 선발 투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도현은 스프링캠프 이후 시범경기에서 2경기 7.1이닝 1승 1홀드 2실점(1자책) 평균자책점 1.23으로 활약하면서 결국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다. 치열한 경쟁을 치른 뒤 5선발로 자리 잡은 김도현은 올해 역시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있다. 김도현은 올 시즌 7경기 40.2이닝 1승 2패 평균자책점 3.10으로 활약했다. 이 기간 퀄리티스타트 4회를 기록, 이는 '외인 에이스' 제임스 네일(6회)과 아담 윌러(5회)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다. 또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은 승수를 올리지 못했지만, 풀타임 선발을 소화하는 첫 시즌에도 매 경기 5이닝 이상을 채워주며 토종 선발 에이스급 성취표를 작성 중이다.

실제 3선발 양현종(7경기 36.2이닝 평균자책점 5.89)과 4선발 윤영철(3경기 5.2이닝 평균자책점 15.88)이 부진 중이고, 김도현은 5선발 이상의 몫을 해내며 선발 마운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토종 선발진 시즌 첫 승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NC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90개의 공을 던진 김도현은 5.2이닝 6피안타(1피홈런) 3탈삼진 3실점으로 역투했다. 김도현이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은 13-3으로 승리를 따냈다. 이범호 감독은 이날 김도현의 투구에 대해 "마운드에서는 그동안 좋은 투구를 했음에도 승리가 없었던 김도현이 5.2이닝을 비자책으로 막아내면서 선발 투수 역할을 잘 해냈다"고 칭찬했다. KIA는 7일 경기 전 기준 16승 18패 승률 0.471로 리그 공동 6위에 자리했다. KIA의 순위 반등을 위해서는 토종 선발진의 활약이 절실하다. 하지만 6월 복귀 예정인 이의리의 토미존 수술을 거쳤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운영철 또한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도현의 활약은 가뭄의 단비다. 김도현이 앞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팀의 2연패를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전남도파크골프협회, 경북 산불 피해 성금 전달

전남도파크골프협회가 경상북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특별 성금 모금에 동참하며 전남체육인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7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파크골프협회는 최근 진행된 목포과학대학교 파크골프장 개장식에서 전남파크골프협회 명의로 전남체육회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전남파크골프협회의 성금은 지난 3월 경상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전남체육회의 특별 성금 모금 활동에 호응해 마련됐다. 특히 이 성금은 전남파크골프협회 산하 22개 시·군협회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참여하면서 더욱 의미를 더했다. 지역 단위 협회가 힘을 합쳐 큰 금액의 성금을 마련한 이번 사례는 생활체육 분야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가치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성금을 전달한 박경래 전남파크골프협회장은 "전국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에 우리 도내 파크골프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뜻 깊은 나눔을 실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지역 체육단체가 단순한 경기 운영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이웃을 돕고 공감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전달해주신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파크골프협회는 최근 진행된 목포과학대학교 파크골프장 개장식에서 전남체육회에 경북 산불피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 광주FC 김진호,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

프로축구 광주FC 김진호가 K리그 통산 100경기를 달성했다. 김진호는 지난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2라운드 김천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며,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22년 강원FC에 입단해 K리그 무대에 데뷔한 김진호는 입단 첫해부터 K리그1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는 등 28경기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이후 2024년 광주로 이적한 김진호는 곧바로 주전 풀백으로 자리 잡았고, 팀 내 최다 출장(36경기) 기록을 세우는 등 팀 내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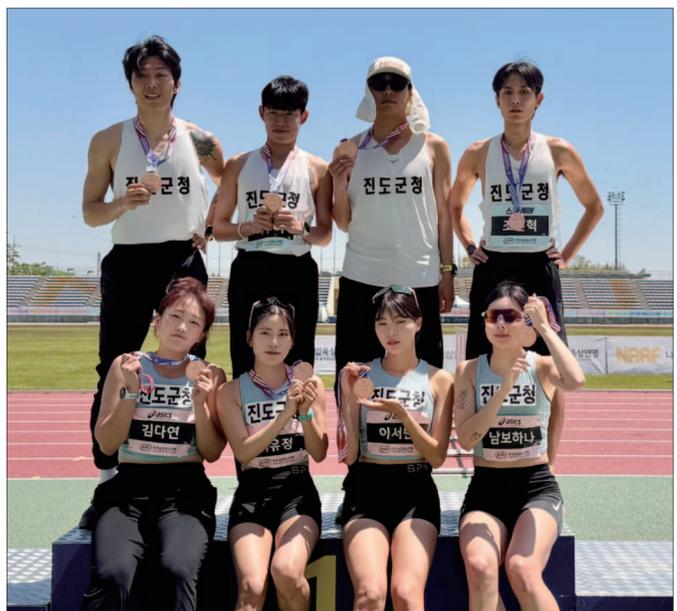


김했다. 또 2024-2025 ACLE 모든 경기에 출전하는 등 광주가 달성한 'K리그 시·도민구단 최초 ACLE 8강 진출' 역사에 주역으로 활약했다. 100경기를 맞이한 김진호는 "데뷔했을 때가 잊고계 같은데 벌써 100경기를 달성했다는 것이 무척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늘 경기장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는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질 전북현대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13라운드 홈 경기에서 김진호의 100경기 기념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진도군청 육상팀, 전국선수권서 '금빛질주'

금2·은1·동4 총 7개 메달 획득  
남보하나, 3000m 대회 '신기록'

진도군청 육상팀이 '제29회 KTFL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에서 무더기 메달을 수확했다. 7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전남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진도군청 육상팀이 총 7개의 메달(금 2, 은 1, 동 4)을 획득했다. 진도군청 육상팀은 올해로 창단 3년 차를 맞아 중·장거리 여러 종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남보하나였다. 남보나는 여자일반부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10분29초6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 대회 신기록(종전기록 10분37초41)을 수립하며 자신의 기량을 전국에 각인시켰다. 진도군청 육상팀의 에이스로 떠오른 남보나는 앞으로 전국체전, 실업연맹대회 등 주요 대회에서도 강력한 메달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또 다른 금메달은 엄태건이 차지했다. 엄태건은 남자일반부 800m 종목에서 1분51초84의 기록으로 깔끔한 레이스 운영을 통해 정상에 오르며 금메달을 획득, 이번 성과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은메달은 이유정이 획득했다. 여자일반부 1만m 경기에서 36분41초10의 기록으로 경기 내내 선두권을 유지하며 치열한 경쟁 끝에 2위를 차지했다. 동메달은 총 네 종목에서 나왔다. 먼저 이주나는 남자일반부 1만m에서 31분1초48의 기록으로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서빈은 여자일반부 800m와 1500m 두 종목에



'제29회 KTFL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한 진도군청 육상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 각각 2분14초09, 4분33초62의 기록을 세우며 두 개의 동메달을 동시에 획득해 다종목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단체전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남자 6000m 계주와 여자 3200m 계주에서 진도군청 팀은 각각 3위를 차지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조직력과 잠재력을 확인시켰다.

김후진 진도군청 육상팀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의 성과는 선수단의 땀과 노력은 물론 진도군과 진도체육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전국 무대에서 진도군청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 여주시청 육상팀, 나주 전국실업육상대회서 선전

이윤슬 세단뛰기 1위 등 올해 입단 3인방 모두 입상

여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이 제29회 나주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여주시청 육상팀은 이번 대회에서 올해 새롭게 영입된 이윤슬, 강길동, 김우중 선수 세 명이 모두 입상하는 성과를 냈다. 이윤슬 선수는 세단뛰기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1위를 차지했고, 강길동 선수와 김우중 선수는 각각 1만m 경보와 창던지기 종목에서 3위

에 올랐다. 여주시 관계자는 "입단 첫해부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세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주시청 육상팀은 앞으로도 전국 무대에서의 활약을 이어 나가며 지역 체육 발전과 위상 제고에 힘을 기울인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여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이윤슬 선수 (왼쪽 세번째)